

대형 유통업체 횡포 뿌리 뽑는다

공정위, 내년부터 납품업체에 관측 비용 전가 행위 금지 하이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도 규제 대상 포함

내년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관측비용을 과징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관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SSM(슈퍼 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PB(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조사와 검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

다. 현행고시는 단일매장 3천㎡ 이상, 방송방송 5대 홈쇼핑업체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고시가 개정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편의점, SSM 등이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돼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관측행사 진행시 관측비의 일 정비율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관측비용을 무조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유통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관측사원 과징의 예외인정 범위도 축소

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추상적으로 돼있던 반포 예외 사유를 명절을 선물세트나 특정계절음 상품 등으로 한정해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포도 막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PB 상품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광고 여부를 실태 조사하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전자전문점 등의 가격 할인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범위안 업체를 감금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호스팅업체와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업체

에 대해서는 쇼핑몰 운영자나 입점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책임을 지도로 해 짝퍽제품 등 사기성 판매를 막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유통전담팀 설치, 대형유통업체 제정을 각각 추진하는 한편 거래형태, 단계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상위 3개사는 작년 1년간 납품업체로부터 총 4천700억원(1사당 1천567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며, 월평균 약 2만8천명(1사당 9천316명)의 관측사원을 과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98%가 관측사원을 과징받았고 65%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휴대폰·카드번호 등록 필수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함께 봉급쟁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과 가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규모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은 필수**=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스카드 등)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회원에 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면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자진발급 영수증도 행거야**=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직접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내역 조회 → 자진발급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들어간 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활용**=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추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내수증가세 확대 5% 성장” 산업연구원 내년 경기 전망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올해보다 다소 높은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이 전망했다.

오 원장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08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미국의 경기부진, 국제금융불안, 환율하락, 고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세,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해외요인이 주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소비가 4% 후반 수준으로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거래에 관해 오 원장은 “선진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고성장세, 원화 절상폭 완화, 하반기 이후 IT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경기 상승세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협력사 테크 데이' 행사에 참석한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테크데이 행사에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한 협력사 관계자가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가운데)과 현대기아차 이현수 사장(왼쪽)에게 신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는 청정에너지 사업이 좌우 탄소시장 진출 서둘러라”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탄소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아니지만 탄소시장 진출이 늦어질수록 유망사업 기회는 줄어든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관련 고수익 프로젝트부터 다른 기업에 의해 선점되는 만큼 참여가 늦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또 환경관련 기업 가운데 미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솔린 대체 자동차, 재생에너지, 청정연료 등이 대표적 유망사업이며 청정 에너지 기업 가운데 미래의 구굴이나 이베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주요기업의 50% 가량은 경영활동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합뉴스

살얼음판 증시... 1,800선 위협

외국인 '셀코리아' + 프로그램 매물 폭탄 코스피 65.25P 급락... 역대 10번째 낙폭

주식시장이 해외 한파로 잔뜩 움츠린 상황에서 수급마저 꼬여 투자심리가 공포 일렁일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밤에 비해 65.25포인트(3.49%·역대 10번째 낙폭) 급락한 1,806.99에 마감, 닷새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12.14포인트(1.64%) 하락한 727.33으로 마감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장중 반등에 나서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1,803.77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8천849억원 매도 우위를 보여 2003년 3월9일에 기록한 종전 사상 최대치(8천847억원)를 소폭 상회했다.

이날 하락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악재가 재차 불거지고 국제유가의 100달러 돌파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에 이어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승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브프라임 여진과 100달러 돌파를 앞둔 국제유가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내에선 최근 금리 급등으로 내년 경기전망이나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지수도 당분간 조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애 키우기 어려워서...” 맞벌이 그만 둔 이유 1위

취업포털 커리어는 과거 맞벌이를 한 적이 있는 여성이 직장인 366명에게 맞벌이를 그만 둔 이유를 설문한 결과(복수응답)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서'(45.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가사노동과 병행하기 어려워서'(26.0%),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24.6%),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17.2%)라는 응답도 있었다.

맞벌이 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직장인 40.7%는 '맞벌이를 할 때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현재가 높다'는 33.9%, '별 차이 없다'는 24.3%였다.

이들 중 75.4%는 맞벌이 자체가 부담이 해소된다면 '다시 맞벌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시트모아	[인터넷쇼핑몰] 포장 및 물품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62-385-4445
한진택배 광산영업소	[한진택배]소사장 및 배송담당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6	062-955-1582
사프정밀	금형부품가공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1/26	062-956-4900
㈜동해테크	정부2센터 운영인력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28	062-371-91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센터장(경력직)	대졸/경력	회사내규	11/30	02-3156-1136
엘론서치	[광주]하노로텔레콤 고객센터(연 2,000만)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30	02-6012-9540
㈜세신기계	CNC 5축기 운전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30	011-644-0060
㈜세화엔터프라이즈	광주북구 대우아파트 KT상황실 경비,관제 요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3-237-4488
㈜인터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경력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30	062-234-2223
대동중공업(주)	설계/생산관리/PM/자재구매/생산직/운전자/주부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55-720-0512
㈜뉴스엔에드	PHP 웹개발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30	062-226-6862
가온특허법률사무소	특허관리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2-959-0300
㈜soc건설	경리 회계 사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2-384-7001
㈜한국아이티	경리 및 회계업무 총괄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944-43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유가 100弗 초읽기 시간의 거래서 99불 돌파

국제유가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사상 처음 배럴당 99달러를 넘어섰다.

21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시간외거래에서 1.26달러(1.3%) 오른 배럴당 99.29달러까지 올랐으며, 현재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배럴당 98.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올해 세번째 금리인하 단행할 것이라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화가 유로와 대비

